

제 1 교 시

2025학년도 사관학교 1차 선발시험 문제지

국 어 영 역

공 통

성명	
----	--

수험번호									
------	--	--	--	--	--	--	--	--	--

- 먼저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기입하십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하게 표기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십시오.

※ 시험 시작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이
관

(1 ~ 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매체 이론가인 매클루언은 인간이 세계를 지각하는 방식과 사회적 소통구조에 미치는 매체의 영향력에 특히 주목하였다. 그는 인간의 감각을 확장하는 모든 기술적 수단을 매체로 규정하고, 매체가 지닌 기술적 특징은 그에 부합하는 감각에 따른 지각 방식을 특정하며, 매체의 변화에 따른 지각 방식의 변화는 인간이 사고하고 소통하는 방식에 변화를 ㉠ 가져온다고 주장하였다. 문자 언어는 대상을 추상화된 방식으로 인식하게 하는데, 매클루언에 의하면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 불려온 인쇄 문화의 확장은 이와 같은 인식 방식을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한편 시각 사용의 비율을 현저하게 높이면서 그 외의 감각을 비합리적인 것으로 여기게 되는 사고 방식의 변화를 일으켰다. 이후 전자·전기 기술 시대의 텔레비전은 문자 언어를 매개하지 않고 감각을 통합적으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인쇄 문화 시대에 파괴된 감각의 균형을 복원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매클루언의 주장이다.

매체의 기술적 특징이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매클루언의 강조는 ㉢ ‘매체가 곧 메시지다.’라는 그의 선언에서도 나타난다. 이를테면 전광판 광고의 내용보다는 전광판에 활용된 전기 기술로 인해 밤과 낮의 구분이 없어지고 삶의 리듬이 변화한다는 데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매체를 활용하는 방식이나 개별 매체가 전달하는 메시지의 내용이 아닌, 매체 자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매클루언의 이러한 주장은 매체가 사회적 소통구조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인간을 수동적인 존재로 ㉣ 보는 기술결정론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플루서는 매체가 인간의 사고 및 소통 방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인정하면서도, 매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매체 그 자체의 특성뿐만 아니라 매체를 활용한 소통 방식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매클루언과는 입장을 달리했다. 플루서에 따르면 매체는 담론적 매체와 대화적 매체로 구분되며, 이들 간의 차이는 ‘의사소통 회로도’를 통해 설명된다. 담론적 매체는 송신자와 수용자가 명확히 구분된 상태에서 일방향적인 소통이 ㉤ 이루어지는 매체이다. 담론적 매체에서는 개별적인 송신자가 분산된 여러 수용자들에게 ‘다발 회로도’를 통해 정보를 송신하는 방식으로 소통한다. 여기서 수용자들은 송신자와 역으로 연결될 수 있는 채널을 소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용자 개개인들끼리 연결될 수 있는 채널도 갖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담론적 매체에서 수용자와 송신자의 역할은 동일 매체 내에서는 바뀔 수 없고, 수용자가 기존의 송신자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는 별개의 매체를 활용해야 한다. 이와 달리 대화적 매체는 ‘망 회로도’를 통해 참여자들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매체이다. 대화적 매체에서는 참여자 상호 간에 메시지 교환이 가능하며 이를 토대로 정보의 생산과 교환이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대화적 매체에서 송신자와 수용자의 구분은 무의미한데, 메시지의 전달과 그에 대한 답변이 매체를 통해 직접적으로 오가는 과정에서 소통 주체의 역할이 계속 변화하기 때문이다.

한편 플루서는 하나의 매체가 그것이 활용되는 방식이나 목적 등에 따라 다른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인터넷은 사람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대화적 매체로 여겨지지만 포털 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용하기만 하는 사람에게 인터넷은 담론적 매체로 기능한다. 또한 플루서는 정보를 보존하기 위해 이미 존재하는 정보를 분배하는 담론적 소통과,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여 새로운 정보로 합성하는 대화적 소통이 균형을 이루는 사회적 소통구조를 지향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대중매체가 지배하는 이십 세기의 현실에서 다발 회로도에 의한 소통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화적 속성을 ㉥ 지닌 매체 역시 담론적 매체로 기능하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담론과 대화의 협연’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매체의 서로 다른 측면에 주목하는 두 학자의 논의를 대비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② 매체의 개념을 둘러싼 두 학자의 논쟁과 그 결과를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③ 매체의 역사를 개괄한 이후 미래의 매체에 대한 두 학자의 예측을 비교하고 있다.
- ④ 매체를 분류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그 적절성에 대한 두 학자의 견해를 차례로 소개하고 있다.
- ⑤ 매체의 특징에 대한 두 학자의 견해를 대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쓴이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2.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매체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인간의 사고방식에 의해 좌우됨을 의미한다.
- ② 매체가 지닌 기술적 특징이 인간의 소통방식에 의해 변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③ 매체가 지닌 기술적 특징이 사회적 소통구조에 일으킨 변화에 주목해야 함을 의미한다.
- ④ 매체가 사고방식에 미치는 영향이 해당 매체가 전달하는 메시지에 의해 결정됨을 의미한다.
- ⑤ 매체로 전달할 메시지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주체적이고 비판적인 태도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3. 윗글에 제시된 [플루서]의 논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담론적 매체에서는 수용자 간의 직접적 연결이 불가능하다.
- ② 대화적 매체와 달리 담론적 매체에서는 소통이 일방향적으로 이루어진다.
- ③ 대화적 매체에서는 같은 매체 내에서 소통 주체의 역할이 고정되지 않는다.
- ④ 소통 주체가 특정 매체를 활용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매체의 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
- ⑤ 담론적 매체와 달리 대화적 매체에서는 송신자가 수용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4. ‘매클루언’과 ‘플루서’의 관점에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점]

— < 보 기 > —

- ㉠ 19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신문은 제한된 독자층을 대상으로 신문사의 정치적 논설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둔 매체였다. 그러나 새로운 제지 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신문의 생산 가격이 낮아지는 한편, 상업 광고 지면이 늘어나며 재정적 기반이 구독료에서 광고료로 전환됨에 따라 독자층이 확대되었다.
- ㉡ 20세기 초에 등장한 텔레비전은 방송국에서 송출한 영상을 분산된 여러 수용자들에게 전달했다. 주로 문자 언어에 의해 매개되는 인쇄물, 단일한 감각을 요구하는 라디오와 같은 이전의 매체와 비교할 때 텔레비전은 훨씬 다채롭고 감각적인 세상을 펼쳐 놓았다.

- ① 매클루언은 ㉠의 ‘새로운 제지 기술의 등장’을 계기로 더 많은 사람들이 문자를 통해 대상을 추상화하여 인식하는 방식을 합리적인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고 보겠군.
- ② 플루서는 ㉠에 제시된 ‘상업 광고 지면’의 확대가 담론과 대화가 균형을 이루는 사회적 소통구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지는 못한다고 보겠군.
- ③ 플루서는 ㉠에 제시된 ‘신문’의 독자층 확대가 신문이라는 담론적 매체의 의사소통 회로도를 다른 유형으로 바꾸지는 못한다고 보겠군.
- ④ 매클루언은 ㉡의 ‘텔레비전’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문자 언어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쇄 문화 시대에 파괴된 감각의 균형을 복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겠군.
- ⑤ 플루서는 ㉡의 ‘텔레비전’이 ‘라디오’와 달리 대화적 매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상과 더 생생하게 연결되는 느낌을 준다고 보겠군.

5. 문맥상 ㉠ ~ ㉥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 : 야기(惹起)한다고
- ② ㉡ : 촉발(觸發)한
- ③ ㉢ : 간주(看做)하는
- ④ ㉣ : 결성(結成)되는
- ⑤ ㉤ : 내포(內包)한

[6 ~ 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민사 집행법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국가가 강제력을 행사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실현하는 법적 절차인 강제 집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그 집행 방법으로 직접 강제, 대체 집행, 간접 강제를 인정하고 있다. 직접 강제는 국가 기관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채무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을 말하며, 대체 집행은 채권자 또는 제삼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의 내용을 실현하게 하고 그 비용을 채무자로부터 추심*하는 것이다. 그리고 간접 강제는 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자에 대한 배상금의 지급 또는 구금 등의 제재를 예고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민사 집행법 제261조 제1항은 채무의 성질이 간접 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간접 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는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직접 강제와 대체 집행은 채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행의 강제를 실현하는 반면, 간접 강제는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집행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자유의사, 즉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에 따른 선택권을 부당히 제한할 우려가 있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채무의 성질상 직접 강제나 대체 집행을 할 수 없는 것만이 간접 강제의 대상이 된다.

채무는 주는 채무와 하는 채무로 구분할 수 있는데,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주는 채무에 대한 강제 집행은 원칙적으로 직접 강제에 의한다. 집행관이 직접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함으로써 ㉠ 특정 물건을 인도하는 채무가 이행되는 것이다. 하는 채무는 물건의 인도 이외의 채무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여 직접 강제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채무의 성질에 대체성이 있는 경우에는 대체 집행을, 대체성이 없는 경우에는 간접 강제를 적용하게 된다. 하는 채무는 불법 건축물 철거와 같이 일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해야 하는 작위 채무와 관망을 방해할 건축을 하지 않는 것과 같이 소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작위 채무로 나뉜다. 작위 채무는 다시 대체적 작위 채무와 부대체적 작위 채무로 구분되는데, 제삼자가 채무를 대신 이행할 수 있어 대체 집행이 가능한 대체적 작위 채무와 달리, 제삼자가 대신할 수 없는 부대체적 작위 채무의 경우에는 간접 강제만 허용된다. 또한 채무의 성질상 채무자만이 채무를 이행할 수 있어 대체성이 없는 부작위 채무는 간접 강제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간접 강제의 대상이 되는 부대체적 작위 채무의 예로는 채무자만이 게시 장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알고 있는 포스터 등을 제거할 채무와 같이 사실상 채무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채무, ㉡ 어음 등에 서명할 채무와 같이 채무자 자신이 하지 않으면 효과가 생기지 않는 채무 등이 있다. 부작위 채무의 예로는 통행 방해 금지 채무, 출입 금지 채무 등이 있으며, 이러한 부작위 채무를 위반한 경우가 간접 강제의 대상이 된다. ㉢ 그러나 부작위 채무의 위반 결과 남아 있는 유체물의 제거, 장래에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막기 위한 물적 설비의 설치 등은 대체 집행에 의한다. 일조 방해 금지 채무에 위반하여 설치된 차폐물의 제거, 출입 금지 채무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담을 설치하는 것 등이 그 예이며, 이는 부작위 채무 자체에 대한 강제 집행이 아니다. 한편 ㉣ 저작, 강연, 연주, 연극 등을 할 채무와 같이 채무의 이행에 채무자 고유의 예술적 또는 학문적 기능을 필요로 하는 채무의 경우는 채무자에게 심리적 강제를 가하면 채무의 본래 취지에 적합한 채무자의 행위가 실현되지 않으므로 간접 강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채무는 민사 집행법에 따른 강제 집행이 불가능한 채무에 해당한다.

간접 강제 결정은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가능하며, 신청서에는 채무자가 해야 할 작위 혹은 부작위 채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이때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해야 할 상당한 기간과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시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명시하고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의 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단, 법원의 판단은 채권자가 신청한 이행 기간이나 배상금의 액수에 구속되지 않는다. 또한 원칙적으로 채권자는 채무자가 해당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개연성이 높아 간접 강제

가 필요하다는 것에 관하여 증거를 갖추어 소명해야 한다. 채권자의 신청을 접수한 법원은 채무자가 이행해야 할 채무가 간접 강제가 가능한 것인지, 해당 사안이 간접 강제의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심리하여 이를 명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

* 추심 : 찾아내어 가지거나 받아 냄.

6. **윗글을 읽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3점]**

- ①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
- ② 강제 집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서 인정하는 강제 집행 방법은 무엇인가?
- ③ 하는 채무가 직접 강제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 ④ 민사 집행법에 따른 강제 집행이 불가능한 채무의 경우 채권자의 피해 구제를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 ⑤ 채권자가 간접 강제 신청을 할 때 신청서에 명시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7. **강제 집행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직접 강제가 불가능한 작위 채무는 모두 대체 집행의 대상이 된다.
- ② 채무의 성질상 직접 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간접 강제가 배제된다.
- ③ 국가의 강제력을 통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 채권자의 권리 실현이 가능하다.
- ④ 작위 채무에 대한 강제 집행 시 실제로 채무를 이행하는 주체는 채무자가 아닐 수 있다.
- ⑤ 민사 집행법 제261조 제1항은 하는 채무 중 일부에 대한 강제 집행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8. ㉠ ~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은 채무자가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한다.
- ② ㉡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다.
- ③ ㉢은 제삼자가 대신 이행한다면 채무자가 한 것과 동일한 작위 결과를 달성할 수 없다.
- ④ ㉠과 ㉡은 모두, 불이행 시 국가 기관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채무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다.
- ⑤ ㉡과 ㉢은 모두,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면 채무의 본래 취지에 적합한 채무의 내용이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

9.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4점]

- ① 법원이 집행 명령을 통해 채무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권한을 채권자에게 위임했기 때문이다.
- ② 부작위 채무에 대한 간접 강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여 대체 집행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 ③ 부작위 채무 위반에서 유래한 유체물의 제거 및 장래에 대한 조치는 부작위 채무로부터 파생하는 별개의 대체적 작위 채무이기 때문이다.
- ④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하나의 채무에 대해 여러 집행 방법 중 채권자의 권리 실현에 더 실효성이 있는 것을 선택하여 집행을 명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⑤ 부작위 채무 위반에 대한 간접 강제 결정에 의하여 배상금의 추심이 완료되면 부작위 채무 위반에서 유래한 위법한 상태를 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점]

< 보 기 >

A 빌라에 거주하는 갑은 안방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윗집 주인인 을을 상대로 누수 방지 공사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또한 갑은 을이 누수 방지 공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1개월 안에 공사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 시까지 월 백만 원의 돈을 지급하라'는 간접 강제를 함께 신청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누수 방지 공사 이행에 대한 청구는 인정을 하였지만 간접 강제 신청은 기각하였다. 재판부는 민사 집행법 제261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채무가 간접 강제에 의한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갑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을이 누수 방지 공사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월 백만 원이 적정한 배상액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 ① 법원은 을이 누수 방지 공사를 이행하지 않을 개연성에 대해 갑과는 판단을 달리한 것이겠군.
- ② 법원은 갑이 신청한 간접 강제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을의 의사를 부당히 제한한다고 판단한 것이겠군.
- ③ 법원은 갑이 제출한 증거가 을의 누수 방지 공사 이행을 강제하는 집행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데에는 충분치 않다고 판단한 것이겠군.
- ④ 법원은 을이 이행해야 할 채무가 부작위 채무나 부대체적 작위 채무가 아니라고 보고 갑의 간접 강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겠군.
- ⑤ 법원은 갑의 첨부 자료만으로는 을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에게 지급할 배상금이 신청서의 액수에 부합함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겠군.

[11 ~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피부의 겉면인 표피는 가장 바깥쪽의 각질층부터 과립층, 가지층, 기저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저층에는 멜라닌 세포와 각질 형성 세포가 있으며, 멜라닌 세포는 가지 돌기들을 통해 각질 형성 세포와 연결되어 있다. 멜라닌 세포는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의 색깔이 검게 변하는 색소 침착에 관여하며, 자외선을 산란하거나 흡수하는 색소인 멜라닌을 합성하여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방어한다. 각질 형성 세포는 세포 분열과 각화 과정을 통해 각질 세포가 되며, 각질 세포의 탈락과 함께 멜라닌도 피부 바깥으로 탈락된다.

피부가 자외선에 노출되면 멜라닌 세포에서는 세포핵 주위에 분포하던 멜라닌 소체가 멜라닌 세포의 가지 돌기 주변으로 이동하여 피부가 일시적으로 검어지는 현상인 즉시 색소 침착이 나타난다. 한편 각질 형성 세포에서는 단백질 p53이 활성화된다. 이들 중 일부는 세포핵 안으로 이동한 후 POMC 단백질의 발현을 유도하며, POMC 단백질은 작은 조각으로 나뉘어 멜라닌 세포 자극 호르몬을 형성한다. 이 호르몬은 세포 외부로 분비되어 멜라닌 세포의 수용체와 결합하고, 이 결합에 의해 발생한 신호는 멜라닌 세포의 핵으로 이동해 티로시나아제의 발현을 유도한다.

티로시나아제는 멜라닌 합성 과정의 핵심인 티로신의 산화 반응을 촉진한다. 이 반응은 수산화물을 생성하는 ㉠ 첫 번째 단계와 수산화물이 산화되는 ㉡ 두 번째 단계로 이루어진다. 멜라닌 소체 내의 기질인 티로신은 결사슬에 다섯 개의 수소 원자와 하나의 수산화물을 가지고 있고, 단백질 효소인 티로시나아제는 티로신과 결합하는 활성 부위에 구리 원자와 산소 원자를 각각 두 개씩 가지고 있다. 구리 원자 중 하나는 티로신의 수산화물과 결합하지만 다른 하나는 결합하지 못하고 남아 있기 때문에 티로시나아제와 티로신은 불안정한 결합을 이룬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티로시나아제가 가지고 있던 산소 원자 하나가 떨어져 나가 티로신의 수소 원자 하나와 반응해 티로신에 수산화물이 추가로 생성되고, 이 수산화물은 티로시나아제의 남은 구리 원자와 결합을 이룬다. 다음 단계로 티로시나아제에 의해 티로신의 두 수산화물에서 산소 원자만 남고 수소 원자는 떨어져 나가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 티로신은 도파퀴논으로 전환된다. 티로신에서 떨어져 나온 두 수소 원자는 티로시나아제에 남아 있던 산소 원자와 반응해 물 분자를 형성한다.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비활성화된 티로시나아제는 산소 공급을 통해 다시 활성화되며 티로신의 산화 반응도 반복된다.

티로시나아제와 분리된 도파퀴논은 페오멜라닌 혹은 유멜라닌이 된다. 도파퀴논이 아미노산의 일종인 시스테인과 결합하여 합성되는 페오멜라닌은 적색과 황색을 띠며 수용성인 멜라닌이다. 반면 시스테인과 결합하지 않고 단백질 효소에 의해 합성되는 유멜라닌은 검은색과 갈색을 띠며 액체에 녹지 않는다. 피부색은 이들 멜라닌의 비율과 양에 의해 결정되며, 멜라닌 세포의 수와 밀도는 피부색과 무관하다.

멜라닌 소체의 내부에 합성된 멜라닌의 양이 많아지면 지연 색소 침착이 나타나는데, 이는 피부가 자외선에 노출된 지 약 72시간 이후에 관찰된다. 또한 멜라닌으로 가득 차서 더 이상 멜라닌의 합성이 일어나지 않게 된 멜라닌 소체는 멜라닌 세포의 가지 돌기를 통해 **각질 형성 세포**로 이동한다. 각질 형성 세포 중 일부는 계속 분열하여 그 수를 늘리며, 일부는 칼슘 이온의 세포 내 유입으로 인해 기저층을 떠나 각화 과정을 시작한다. 각화 과정은 각질 형성 세포가 가지층과 과립층을 거쳐 각질 세포가 되는 과정이다. 가지층에서 각질 형성 세포는 지방 등의 유기물인 지질을 포함하게 된다. 각질 형성 세포끼리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탄탄한 단백질 구조에 의해 밀착되며 이렇게 밀착된 상태는 과립층으로 이어진다. 과립층에서 각질 형성 세포는 세포핵이 분해되어 없어진 각질 세포가 되고, 이 각질 세포가 쌓여 각질층을 이룬다. 각질층에서 각질 세포에 남아 있던 지질 중 일부는 세포에서 빠져나와 외부의 유해 물질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고 인체가 수분을 잃지 않도록 기능한다. 각질층의 가장 바깥에 있는 각질 세포는 일정 기간이 **㉢ 지나면** 단백질 구조가 분해되면서 피부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

11.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시스테인과 결합해 합성된 멜라닌은 물에 녹는 성질이 있다.
- ② 멜라닌 세포 내 멜라닌 소체의 위치 변화로도 피부가 검게 변할 수 있다.
- ③ 멜라닌 세포의 수가 많고 밀도가 높다고 해서 피부색이 어두운 것은 아니다.
- ④ 멜라닌 소체 내에 멜라닌이 가득 차게 되면 더 이상 멜라닌의 합성이 일어나지 않는다.
- ⑤ 자연 색소 침착은 멜라닌 합성을 끝낸 멜라닌 소체가 각질 형성 세포로 이동하면서 일어난다.

12.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4점]

- ① ㉠은 ㉡과 달리 멜라닌 소체 내에서 일어난다.
- ② ㉠에는 ㉡과 달리 티로시나아제와 티로신의 결합이 불안정한 상태가 존재한다.
- ③ ㉡에서는 ㉠에서와 달리 티로시나아제의 구리 원자가 티로신의 수산화물과 결합한다.
- ④ ㉠과 ㉡에서는 모두 티로신과 티로시나아제로 인해 물 분자가 형성된다.
- ⑤ ㉠과 ㉡에서는 모두 티로시나아제의 산소 원자가 티로신에서 떨어져 나온 수소 원자와 반응한다.

13. 각질 형성 세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분열 과정에서 칼슘 이온이 작용해 그 수가 증가한다.
- ② 멜라닌 세포의 가지 돌기를 통해 멜라닌 세포와 연결되어 있다.
- ③ 기저층을 떠나 가시층, 과립층을 거쳐 무핵 세포인 각질 세포가 된다.
- ④ 가시층에서 지질을 포함하게 되며 단백질 구조를 통해 서로 밀착된다.
- ⑤ 멜라닌 세포의 수용체와 결합하는 멜라닌 세포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는 곳이다.

14.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 ~ ㉤가 일으킬 수 있는 반응을 예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점]

— < 보 기 > —

기능성 화장품 중 색소 침착이 일어나지 않게 하거나 합성된 멜라닌을 탈락시키는 것들이 있다. 이들 화장품에 사용되는 성분 중 ㉠ 산화 아연은 피부 표면에서 자외선을 산란시킨다. ㉡ 알부틴은 티로신과 마찬가지로 결사슬에 수산화물을 가지고 있어서 멜라닌 세포 내에서 티로시나아제의 활성 부위에 결합할 수 있다. ㉢ 알과 하이드록시산은 피부 표면에서 각질 세포끼리 밀착시키는 단백질 구조를 분해한다.

- ① ㉠은 피부에 미치는 자외선의 영향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색소 침착을 억제할 수 있겠군.
 ② ㉡는 티로신과 티로시나아제의 결합을 방해함으로써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티로신의 비율을 감소시키겠군.
 ③ ㉢는 각질 세포가 피부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면서 이에 포함된 멜라닌의 탈락을 유발할 수 있겠군.
 ④ ㉠은 멜라닌 세포 자극 호르몬의 형성 가능성을 낮춘다는 점에서 티로시나아제의 발현 가능성을 억제하고, ㉡의 수산화물은 티로시나아제의 구리 원자와 결합하여 티로신이 도파민으로 전환되는 것을 억제하겠군.
 ⑤ ㉣는 각질 형성 세포 내 p53의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는 각화 과정을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모두 멜라닌 합성 과정을 억제하겠군.

15. ㉠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3점]

- ① 해가 수평선을 지나 떠오르고 있었다.
 ② 그는 아들의 말을 무심코 지나 버렸다.
 ③ 사춘기가 지나 부모님과의 갈등이 줄어들었다.
 ④ 화물차가 교차로를 지나 고속도로로 들어섰다.
 ⑤ 전력 사용량이 정해진 한계를 지나 경고가 내려졌다.

[16 ~ 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의 소년 시절은 은빛 바다가 엿보이는 그 긴 언덕길을 어머니의 상여와 함께 꼬부라져 돌아갔다.

내 첫사랑도 그 길 위에서 조약돌처럼 집었다가 조약돌처럼 잃어버렸다.

그래서 나는 푸른 하늘빛에 호져 때 없이 그 길을 넘어 강가로 내려갔다가도 노을에 함뿍 자줏빛으로 젖어서 돌아오곤 했다.

그 강가에는 봄이, 여름이, 가을이, 겨울이 나의 나이와 함께 여러 번 땡겨갔다. 까마귀도 날아가고 두루미도 떠나간 다음에는 누런 모래둔과 그리고 어두운 내 마음이 남아서 몹서리쳤다. 그런 날은 항용 ㉠ 감기를 만나서 돌아와 앓았다.

할아버지도 언제 난 지를 모른다는 동구 밖 그 늙은 ㉡ 버드나무 밑에서 나는 지금도 돌아오지 않는 어머니, 돌아오지 않는 계집애, 돌아오지 않는 이야기가 돌아올 것만 같아 멍하니 기다려 본다. 그러면 어느새 어둠이 기어와서 내 뺨의 얼룩을 씻어 준다.

- 김기림, 「길」 -

(나)

박수 소리. 나는 박수 소리에 등 떠밀려 조희단 앞에 선다. 운동화 발로 차며 나온 시선, 눈이 많아 어지러운 ㉢ 잠자리 머리. 나를 움아매는 박수의 ㉣ 낙하산 그물, 그 탄력을, 텅, 끊어버리고 싶지만, 아랫배에서 악식*으로 부글거리는 어머니. 오오 전투 같은, 늘 새마을기와 동향으로 나부끼던 국기마저 미동도 않는, 등 뒤에 아이들의 눈동자가, 검은 교복에 돌보기처럼 열을 가한다. 천여 개의 돌보기 조명, 불개미 떼가 스물스물 빈혈의 육체를 버리고 피난한다. 몸에서 팽그르 ㉤ 파르란 연기가 피어난다. 팽이, 내려서고 싶어요. 둥그런 현기증이, 사람털미가, 전교생 대표가, 절도 있게 불우 이웃에게로, 다가와, 쌀 포대를 배경으로, 라면 박스를, 나는, 라면 박스를, 그 가난의 징표를, 햇살을 등지고 사진 찍는 선생님에게, 노출된, 나는, 비지처럼, 푸석푸석, 어지러워요 햇볕, 햇볕의 설사, 박수 소리가, 늘어지며, 라면 박스를 껴안은 채, 슬로비디오로, 쓰러진, 오, 나의 유년!! 그 구겨진 정신에 유리 조각으로 박혀 빛나던 박수 소리, 박수 소리.

- 함민복, 「박수 소리 1」 -

* 악식 : 맛없고 거친 음식.

16.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 ② 쉼표의 잦은 사용을 통해 급박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 ③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대상의 이상적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 ④ 명사로 문장을 종결하여 중심 대상으로 초점을 모으고 있다.
- ⑤ 감탄사의 사용을 통해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17.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은 상실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생겨난 ‘어두운 내 마음’이 육체의 증상으로 표면화된 것이다.
- ② ㉡은 ‘할아버지도 언제 난 지를 모른다’는 점에서 과거의 기대를 유지하기가 어려움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은 ‘등 떠밀려 조희단 앞에 선’ 상황에서, 자신을 향한 수많은 시선을 의식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은 ‘악식으로 부글거리는 어머니’와 연결되어 박수를 받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은 ‘등 뒤에 아이들의 눈동자’가 자신을 주시하는 데에서 비롯된 고통이 시각화된 것이다.

18.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점]

< 보 기 >

유년 시절의 회상을 다룬 시들은 화자의 과거 경험을 시간적으로 조직하고 형상화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경험 당시의 화자와 경험을 회상하는 화자가 해당 경험으로부터 받은 영향에서도 발견된다.

- ① (가)의 화자는 ‘어머니’와 ‘첫사랑’의 상실로 인해 아픔을 겪었던 소년 시절을, (나)의 화자는 ‘가난의 징표’인 ‘라면 박스’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받으면서 수치심을 느꼈던 유년 시절을 회상하고 있군.
- ② (가)는 ‘돌아갔다’와 같은 과거형에서 ‘준다’와 같은 현재형 시제로 전환하면서 과거 경험과 이를 회상하는 상황을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나)는 ‘선다’와 같은 현재형에서 ‘빛나던’과 같은 과거형 시제로 전환하면서 현재화된 과거 경험의 회상을 마무리하고 있군.
- ③ (가)에서 ‘강가’에 사계절이 ‘나의 나이와 함께 여러 번 땡겨갔다’는 것은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겪은 경험을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고, (나)에서 ‘슬로비디오로, 쓰러진’다는 것은 과거 경험의 짧은 순간을 확장하여 표현한 것이군.
- ④ (가)에서 화자가 ‘강가로 내려갔다가도 노을에 함뿍 자줏빛으로 젖어서 돌아오곤’ 한 것은 아픔을 극복하고자 했던 당시의 시도가 무위로 돌아갔음을 드러내고, (나)에서 화자가 ‘팽이’에서 ‘내려서고 싶’지만 그러지 못했던 것은 상황을 견디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졌음을 드러내는군.
- ⑤ (가)에서 ‘멍하니 기다려’ 보는 행위는 경험을 회상하는 화자에게 과거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나)에서 ‘구겨진 정신에 유리 조각으로 박’힌 것으로 인식되는 ‘박수 소리’는 과거의 경험이 화자에게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 있음을 보여 주는군.

[19 ~ 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한 치도 안 되는 풀이 봄 이슬 맞은 후에
잎 넓고 줄기 길어 밤낮으로 붙어났다
이 은혜 망극하니 갚을 줄을 몰라라

<제1수: 부자>

㉠ 먼저 나니 후에 나니 차례야 다를지라도
앞과 뒤를 이어서 한 젖으로 자랐다
사람이 이 뜻을 모르면 금수만도 못하리

<제4수: 형제>

㉡ 당우* 멀어지고 한당송*이 이어지니
천지 오래되니 세상 도의 아니 변하겠냐
그래도 일곱 구멍 가졌으니* 오류이야 모르랴

<제6수: 난 1>

㉢ 옷밥이 부족하니 예의 차릴 겨를 없어
가속당서*를 상관없다 여기느냐
그래도 보고 들으면 배울 것 있으리

<제7수: 난 2>

이웃을 미워하지 마라 이웃이 미우면 갈 데 없어
고을이 버리고 나라가 다 버리리
백년도 못 살 인생이 그러그러 어떠리

<제8수: 난 3>

- 박선장, 「오륜가」 -

* 당우, 한당송: 각각 요순시대, 한나라·당나라·송나라를 의미함.

* 일곱 구멍 가졌으니: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얼굴에 있는 눈, 귀, 코, 입의 구멍이 일곱임을 가리킴.

* 가속당서: 글방과 학교.

(나)

┌ 집에 옷밥을 두고 들먹은* 저 고공아

[A] 우리 집 기별을 아느냐 모르느냐

└ 비 오는 날 일 없을 때 새끼 꼬며 이르리라

처음에 할아버지 살림살이하려 할 때

인심을 많이 쓰니 사람이 절로 모여

풀 베고 터를 닦아 큰 집을 지어 내고

씨레 보습 쟁기 소로 전답을 경작하니

올벼 논 텃밭이 여드레 같이로다

자손에 전계하야 대대로 내려오니

논밭도 좋거니와 고공도 근검터라

저희마다 농사지어 풍요롭게 살던 것을

요사이 고공들은 생각 어찌 아주 없어
 밥사발 크나 작으나 동욱이 좋고 굶으나
 ㉠ 마음을 다투는 듯 호수*를 시기하는 듯
무슨 일 생각에 흘깃할것 하는 건가
 너희네 일 아니하고 시절조차 사나워서
 가뜩에 내 세간이 풀어지게 되었는데
 ㉡ 옛그제 화강도에 가산을 탕진하니
집 하나 불타 버리고 먹을 것이 전혀 없다
크나큰 세사를 어찌하여 치르려뇨
 김가 이가 고공들아 새 마음 먹자꾸나
 ㉢ 너희네 젊었느냐 생각 설마 아니하나
한술에 밥 먹으며 번번이 시기하라
한마음 한뜻으로 농사를 짓자꾸나

(중략)

너희네 데리고 새 살림 살자 하니
 옛그제 왔던 도적 아니 멀리 갔다 하되
 너희네 귀 눈 없어 저런 줄 모르건대
 화살을 제쳐 놓고 ㉣ 옷밥만 다투느냐
 너희네 데리고 추운가 주리는가
 죽조반 아침저녁 더 해서 먹었는데
 은혜일랑 생각 앓고 제 일만 하려 하니
 [B] 생각 깊은 새 머슴 어느 때 얻어 있어
 집일을 맡기고 시름을 잊으려뇨
 너희 일 애달파하면서 새끼 한 사리 다 꼬겠구나

- 허전, 「고공가」 -

* 들먹은: 못나고도 마음이 올바르지 못한.
 * 호수: 공물과 세금을 거두어 바치는 일을 책임진 사람.

19.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 대구를 활용하여 혈육 간의 위계가 중시되는 세태를 경계하고 있다.
- ② ㉡: 시간의 경과를 제시하여 세상 변화의 불가피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서로 반목하는 행태를 제시하며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고 있다.
- ④ ㉣: 원인과 결과를 제시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⑤ ㉠: 의문형 표현의 반복을 통해 대상을 질책하는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20. ㉠와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4점]

- ① ㉠은 ‘예의’를 차리기 위해 필요한 도구를, ㉡은 ‘도적’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을 의미한다.
- ② ㉠은 ‘예의’를 도외시하는 상황에서 내세우는 핑계를, ㉡은 ‘화살’을 갖추는 과정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를 의미한다.
- ③ ㉠은 ‘예의’ 차리기를 외면하게 하는 현실의 여유를, ㉡은 ‘도적’의 침입을 외면하게 하는 현실의 유혹을 의미한다.
- ④ ㉠은 ‘가속당서’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하는 실생활의 문제를, ㉡은 ‘도적’의 침입을 대비하는 일의 시급함을 간과하게 하는 눈앞의 이익을 의미한다.
- ⑤ ㉠은 ‘가속당서’의 필요성을 느끼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를, ㉡은 ‘화살’을 갖추는 일의 절박함을 느끼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조건을 의미한다.

21.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점]

— < 보 기 > —

교훈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시가에서 작가는 교훈을 전달하고자 하는 대상과 화자 - 청자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특정 덕목을 제시하고 이를 수용하여 실천할 것을 설득한다. 부모에 대한 효를 비롯한 오륜, 형제 간의 우애, 이웃 간의 화목, 근검 등 주로 유교적 가치관에 기반한 이들 덕목은 사람됨의 기본을 이루는 것이자 공동체의 지속과 번영에 필수적인 것으로 제시된다. 화자는 청자에게 덕목 실천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제시하며 훈계하는 한편, 스스로를 청자와 함께 덕목 실천의 주체로 설정함으로써 실천의 당위성을 강조한다.

- ① (가)의 <제1수>에서는 ‘풀’과 ‘봄 이슬’의 관계를 바탕으로 부모에 대한 효를, (나)에서는 과거 ‘고공’의 바람직한 모습을 들어 근검을 덕목으로 제시하고 있군.
- ② (가)에서 <제4수>의 ‘금수만도 못하리’와 <제6수>의 ‘그래도 일곱 구멍 가졌으니’는 청자에게 제시하는 덕목이 사람됨의 기본을 이루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군.
- ③ (나)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농사를 짓자꾸나’와 ‘너희네 데리고 새 살림 살자 하니’는 화자가 스스로를 청자와 함께 덕목을 실천하려는 주체로 설정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군.
- ④ (가)에서 <제7수>의 ‘보고 들으면 배울 것 있으리’와, (나)에서 ‘크나큰 세사를 어찌하여 치르려뇨’는 청자가 덕목을 수용할 필요가 있음을 설득하는 것이군.
- ⑤ (가)에서 <제8수>의 ‘이웃이 미우면 갈 데 없어’와, (나)에서 ‘자손에 전계하여 대대로 내려오니’는 공동체의 지속과 번영을 위한 덕목 실천 행위를 제시하는 것이군.

22. [A]와 [B]를 바탕으로 (나)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일 없을 때’ 시작된 이야기가 ‘새 머슴’ 얻는 것에 대한 기대로 끝나면서,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드러나고 있다.
- ② ‘저 고궁’이라는 호칭이 ‘너희네’로 바뀌며 진행되는 이야기의 흐름이, 인물들의 지위가 역전되는 양상에 조용하고 있다.
- ③ ‘우리 집 기별’에서 시작하여 애달픈 ‘너희 일’로 이어지는 이야기의 흐름이, 특정 행위가 지속되는 시간에 조용하고 있다.
- ④ ‘들먹은’으로 제시된 특성에 ‘제 일만 하려 하니’가 추가되면서, 특정 인물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
- ⑤ ‘아느냐 모르느냐’에서 시작하여 ‘시름을 잊으려뇨’로 끝나는 이야기의 흐름이, 인물 간 갈등의 발생과 해소에 조용하고 있다.

[23 ~ 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칠십 년대 이후로 손을 본 적이 없는 듯 낡고 어두컴컴한 곳이었다. 전구를 판매하는 가게였으나 가게를 밝히는 전구라고는 벽에 걸린 노랑고 푸른 알전구 다발뿐이었다.

빹빹하다.

라는 말의 이미지 사진을 만든다면 아마도 그런 광경일 것이 틀림없었다.

그야말로 빹빹하다.

라고 생각한 뒤엔 아무런 말도 떠올릴 수 없을 만큼 눈앞이 빹빹했다.

그 속에서 전구를 파는 노인은 술 많은 머리칼이 모두 하얗게 세어 버린 칠십대 노인이었다. 그는 벽돌만 한 골판지 상자들이 빼곡하게 들어찬 선반을 등진 채로 나무 책상과 걸상을 놓아두고 앉아 있었다. 침침하게 머리 위를 밝히고 있는 알전구 불빛 속에서 그는 언제나 무언가를 들여다보며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다가 손님이 찾아와서 어떤 종류의 전구를 달라고 말하면 대답도 없이 서서히 걸상을 밀며 일어났다. 서두르는 법 없이 그렇다고 망설이는 법도 없이 선반의 한 지점으로 부들거리며 다가가

[A] 서, 어느 것 하나 새것이 아닌 골판지나 마분지 상자들 틈에서 벽돌을 뽑아내듯 천천히 상자 하나를 뽑아내고 그것을 책상으로 가져와서 일단 내려둔 뒤엔 너털너털한 뚜껑을 젓혀 두고, 이번엔 다른 선반으로 걸어가서 손바닥만 한 비닐 봉투 한 장을 가지고 책상으로 돌아온 뒤, 시간을 들여 정성껏 봉투를 벌려서 입구를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오른손을 상자에 넣어서 손톱만 한 전구를 한 움큼 쥐고 나서, 왼손에 들린 채로 대기하고 있는 봉투 속으로 한 번에 한 개씩, 언젠가 내가 다른 손님들 틈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가 재미있게 얻어들은 바에 의하면, 제비 새끼 주둥이에 뽕 과자 주듯, 떨어뜨렸다.

바쁜 일로 서두르며 **오무사**까지 걸어갔어도 그거 주세요, 하고 난 뒤로는 오로지 **그의 패턴**으로만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오무사를 방문한 손님들은 입구에서 냇을 놓고 선 채로 가게 안을 들여다보거나, 근처 구멍가게에서 삶은 계란을 까먹으며 기다렸다가 전구를 받아가곤 했다. 노인은 느릿해도 대단히 집중해서 움직였으며 그 움직임엔 기쁨마저 배어 있어서, 손님의 처지에선 재촉할 틈이 없었다. 대단히 성급한 사람 중에 몇 마디 투덜거리는 경우는 있어도 다른 곳으로 가 버리는 경우는 없었다. 오무사의 상자들이 워낙 오래전부터 쌓여 온 것들이라 어디서도 구해볼 수 없는 전구를 거기서는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잘 보면 불펜으로 조그만 표시가 되어 있는 상자들도 있었지만 표시조차 없는 상자들이 더 많아서,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 사람은 그곳의 주인뿐이었고, 사실 **오무사의 노인**은 어떤 전구를 달라고 해도 해매는 법 없이 곧장, 느릿느릿하기는 해도, 그 전구가 담긴 상자가 있는 선반을 향해 걸어갔다.

할아버지가 죽고 나면 전구는 다 어떻게 되나. 그가 없으면 도대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누가 알까. **오래되어서 귀한 것을 오래되었다고 모두 버리지는 않을까.** 오무사에 다녀오고 나면 이런 생각들로 나는 막막해지곤 했는데, 수리실을 찾아오는 사람들 중엔 수리실과 여 씨 아저씨를 두고 이것과 비슷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서 나는 그때마다 수리실의 내력을 생각해 보고는 했다.

어느 날 전구를 사러 내려갔더니 노인도 선반도 없었다.

㉠ 텅 비어서, 어두운 벽만 남아 있었다.

돌아가셨구나, 하고 생각했다.

수리실로 돌아가서 소식을 전하자, 오무사 노인이 돌아가셨나보다고 여 씨 아저씨도 한동안 착잡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사고자 했던 전구는 더는 재고가 없는 것이라 이 전구가 필요한 수리는 하지 못하고 돌려보냈다. 재고가 없고 나니 같은 전구를 필요로 하는 수리가 부쩍 늘어나서 ㉡ 여 씨 아저씨와 나는 이상하다고, 드는 자리는 몰라도 나는 자리는 이렇게 표가 나는 법이라고, 모든 게 아쉽다고, 말을 나누는 일이 종종 있었다.

[중략 부분의 내용] 그해 겨울, 전자 상가의 다섯 개 동 중 오무사가 있던 '가 동'의 철거가 결정되었다. 철거 후 가동이 있던 자리에는 공원이 조성되었고, 공원 주변 상가들도 재정비되며 사라졌다.

봄에는 조경이 마무리되었다. 장막이 모두 사라지고 첫 번째 **공원이 모습을 드러냈다.**

㉢ 짙막하게 올라온 잔디의 빛깔이 푸르고 싱싱했다.

테니스 코트처럼 예쁘장한 모습이었다.

무재 씨와 나는 늦게까지 상가에 남아 있다가 공원으로 내려갔다.

살금살금 걸어서 공원 가장자리에 설치된 긴 의자에 앉았다. 긴 의자는 네 사람이 앉을 만한 길이였고 중간쯤에 얼핏 봐서는 팔걸이처럼 보이는 딱딱한 가로 막대가 붙어 있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나눠 놓았을까요, 라고 묻자 늙지 말라는 의미죠, 라면서 무재 씨는 의미 모르게 웃었다. 나도 웃었다. 안개가 고인 밤이었다. 사오 미터 간격으로 가로등이 박혀 있어 아주 어둡지는 않았다. 가로등은 길쭉하게 위로 솟아 있었는데 윗부분에 조그만 샷갓을 쓰고 있어 어찌 보면 버섯 같기도 하고 달리 보면 파수를 서고 있는 무사처럼 보이기도 했다. 잔디에 달라붙은 안개가 가로등 불빛을 받고 반짝거렸다. ㉣ 나는 안개를 먹고 숨이 조금 갑갑했다.

무재 씨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담긴 봉투를 가지고 있었다. 그 속에서 샌드위치를 고르고 우유도 한 갑 받아서 뜯었다. 잔디밭에 드문드문 박힌 출입 금지 팻말을 바라보며 먹고 마셨다.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동서 방향으로 도심을 가로지르는 대로가 있었고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가동이 사라져 고스란히

드러난 나 동의 붉은 외벽이 보였다. ㉔ 공원은 이 북쪽 벽을 바로 면하고 있어서 공원의 처지에서든 나 동의 처지에서든 갑자기 잘린 것처럼 서로를 향해 육박해 있었다. ㉕ 가 동에서 길을 잃고 헤맨 적이 있는 나는 그 자리에 공원이 조성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우 넓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앉아서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작았다. 작네요, 라고 멍하게 말하자 무재 씨가 빈 우유갑을 반으로 접으며 생각했던 것보다 좁아서, 놀랐다고 말했다.

여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다 어디로 갔을까요.

하며 잔디밭 너머를 바라보았다.

무재 씨와 내가 나란히 앉아서 바라보고 있는 방향으로 새로 심긴 단풍나무의 그림자가 늘어져 있었다. 밤 그림자라서 가장자리가 여러 겹으로 겹쳐 있는 것을 보고 거기 어디쯤이 단발머리 할머니의 종이 상자 병풍이 있던 자리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그녀에 대해 말하자 무재 씨도 그녀를 여러 차례 보았다고 말했다. 그러냐고 말한 뒤로 얼마간 침묵이 흘렀다. 잠자리를 닦았으나 잠자리보다는 작고 모기보다는 큰 풀벌레 한 마리가 비틀거리며 내 무릎 부근을 날다가 손등에 달라붙었다. ㉖ 안개 때문에 날개가 무거워서 제대로 날지 못하는 것 같았다. 손등을 타고 손목으로 기어올랐다가 다시 손등으로 내려가서 숨을 죽인 채로 붙어 있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었다. 무재 씨가 말했다.

은교 씨는 슬림이 무슨 뜻인지 아나요? /가난하다는 뜻인가요?

나는 사전을 찾아봤어요. /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도시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구역, 하며 무재 씨가 나를 바라보았다.

이 부근이 슬림이래요. / 누가요?

신문이며, 사람들이. / 슬림?

좀 이상하죠. / 이상해요.

- 황정은, 「백(百)의 그림자」 -

23. [A]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행위가 일어나는 과정을 세분화하여 서술함으로써 공간에 대한 인상을 부연하고 있다.
- ② 서술자인 인물의 내면이 공간의 이동에 따라 변화해 가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외양과 행동의 묘사를 통해 관찰 대상이 겪고 있는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 ④ 현재형의 서술을 활용하여 대상의 행동을 현장감 있게 보여 주고 있다.
- ⑤ 서술자를 교체하여 관찰 대상의 행동에 담긴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

24. ㉗ ~ 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㉗: 각 문단을 하나의 짧은 문장으로 구성하여 존재의 부재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㉘: 인용된 각 발화의 주체를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두 인물 간에 형성된 공감대를 드러내고 있다.
- ③ ㉔: 공간의 외적 특징을 언급함으로써 변화된 공간을 마주한 소감을 밝히고 있다.
- ④ ㉕: 비유적 표현을 통해 이질적인 속성의 두 대상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 ⑤ ㉖: 과거의 경험과 결부시켜 예측과 실상 간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25. ㉔와 ㉕를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㉔와 달리 ㉕에는 ‘나’가 ‘공원’을 통해 느끼는 심리 상태가 드러나 있다.
- ② ㉔와 ㉕는 모두 ‘나’와 ‘무재 씨’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를 암시하고 있다.
- ③ ㉔와 ㉕를 통해 특정 소재가 미치는 영향이 대상에 따라 상반됨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㉔에서 느꼈던 ‘갑갑’함이 ㉕에서 연민으로 바뀐 것을 통해, ‘폴벌레’는 ‘나’의 증상을 완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㉔의 ‘갑갑’함과 ㉕의 ‘제대로 날지 못하는 것’의 이유가 동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아, ‘나’는 ‘폴벌레’에게서 자신과의 유사성을 발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6.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점]

— < 보 기 > —

빠름과 새로움이 주는 효율을 중시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느리고 낡은 삶의 방식을 고수하며 사십 년 된 전자 상가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이 작품의 등장인물들은 배제되어야 할 존재로 치부된다. 철거와 재개발로 삶의 흔적을 지우고 명명을 통해 다양한 삶의 개별성을 획일화하는 사회에 대해 인물들은 사라진 삶을 기억하는 등의 방식으로 배제의 논리에 대응한다.

- ① 손님들에게 ‘그의 패턴’대로 물건을 판매하는 ‘오무사의 노인’의 모습은 효율을 중시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논리에 어긋나는 것임을 알 수 있군.
- ② ‘오래되어서 귀한 것을 오래되었다고 모두 버리지 않는을까’에서 ‘나’는 ‘오무사’로 상징되는 느리고 낡은 삶의 방식에 대해 회의를 드러내고 있군.
- ③ ‘칠십 년대’부터 이어져 온 전자 상가가 사라지고 ‘공원이 모습을 드러’낸 것에서 철거와 재개발로 삶의 흔적을 지우는 사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나’가 ‘거기 어디쯤’에서 ‘단발머리 할머니의 종이 상자 병풍’을 떠올리고 ‘무재 씨’와 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이들이 사라진 삶을 기억하는 방식으로 배제의 논리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군.
- ⑤ ‘신문이며, 사람들’이 전자 상가 부근을 ‘슬럼’으로 명명한 것은 해당 공간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물들의 개별성을 획일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군.

[27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적멸사에 선사가 있었는데, 범명은 ‘청허’였다. 본성이 어질고 자애로우며 마음이 자비롭기 그지없어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을 보면 옷을 주었고, 굶주린 사람을 보면 먹을 것을 주었다. 그리하여 사람들 모두가 청허를 한겨울에 부는 봄바람이라 생각했고, 엮어 놓은 집시 속처럼 빛이 안 드는 곳까지 환히 비추어주는 해와 같다고 여겼다.

아아! 나라가 불행하여 철마가 천지를 뒤덮자 임금은 고립되고, 슬프게도 우리 백성의 절반이 적의 칼날을 받았다. 저 강도*는 더욱 심하게 짓밟혀 시내에 흐르는 것은 피요, 산에 쌓인 것은 뼈였지만 까마귀가 시신을 쪼아도 매장해 줄 사람이 없었다.

청허 선사는 주인 없는 시신을 가련히 여겨 수습해 줄 생각으로 버드나무 가지를 든 채 날 듯이 강을 건넜다. 하지만 인가가 모두 폐허가 되어 의지할 곳이라곤 없었다. 연미정 남쪽에 풀을 베어 움막을 짓고 그곳에서 불공을 드리며 속식을 했다.

어느 날 밤 청허 선사는 설핏 잠이 들어 꿈을 꾸었다. ㉠ 하늘과 강이 모두 파란데 수심에 잠긴 구름은 모였다 흩어졌다 하고, 서글픈 바람은 불었다 그쳤다 하며, 밤기운이 처량한 게 심상치 않았다. 선사는 석장을 짊고 달빛을 밟으며 한가로이 거닐었다.

[A] 한밤중이 되자 바람결에 전해 오는 소리가 있었으니, 노랫소리와 울음소리와 웃음소리였다. 웃고 울고 노래하는 소리를 따라가 보니 한곳에 여자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닌가. 선사가 몹시 기이하게 여겨 다가가서 엿보니, 줄지어 모여 앉은 이들이 죄다 여자였다. 어여쁜 얼굴이 시들고 백발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청춘이 아직 시들지 않아 검푸른 머리가 풍성한 사람도 있었다. 젊은 사람인지 늙은 사람인지 겉모습으로 분명히 알 수 있었지만 선후 없이 뒤섞여 앉아 성대한 모임을 가졌다. 그런데 이들 모두는 놀라고 두려워 허둥지둥하는 모습에 서글픈 기운을 띠고 있었다.

선사가 더 다가가서 자세히 보니 연약한 머리가 한 길 남짓한 밧줄에 묶이거나 한 자쯤 되는 칼날에 붙어 있는 이도 있고, 으스스리진 뼈에서 피가 흐르는 이도 있고, 머리가 모두 부서진 이도 있고, 입과 배에 물을 머금고 있는 이도 있었다. 그 참혹하고 애처로운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었고, 이루 다 기록할 수도 없었다.

한 부인이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나랏님이 피란했으니 그 처참함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하지만 아아, ㉡ 제가 운명을 달리한 건 하늘의 뜻입니까, 귀신의 뜻입니까? 그 이유를 찾으면 이르는 답이 있으니, 바로 내 남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편은 재상의 지위에 있었고 체찰사의 임무를 맡았거늘 공론을 살피지 않고 사사로운 정에 치우쳐서 강도의 막중한 임무를 사랑하는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그 아이는 부귀에 빠져 아름다운 경치나 즐기며 앞날에 대한 계책이라고는 전혀 없었으니, 군사 일에 대해 무슨 아는 것이 있었겠습니까? ㉢ 강이 깊지 않은 게 아니요 성이 높지 않은 게 아니었건만, 대사를 그르치고 말았으니 죽임을 당한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버의 잘못으로 인한 일이니 그 아이에게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 아아, 운명이 기박한 제가 기꺼이 자결한 것도 당연하니 그 일은 한스러울 게 없습니다. 다만 외아들이 살아서 나라에 보답하지 못하고 죽어서도 죄가 남았으니, ㉣ 천 년 동안 남을 악명을 온 바다를 기울인들 어찌 씻을 수 있겠습니까? 쌓이고 쌓인 한이 옷깃에 가득하여 하루도 잇을 날이 없답니다.”

말을 다 마치기 전에 한 부인이 몸을 일으키더니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말했다.

“서방님은 자기 재주를 헤아리지 못하고 홀로 중책을 맡아 천혜의 지형만 믿고 군사 일 돌보기를 게을리했으니, 그 결과 방어에 실패한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온 강에 비바람이 몰아쳐 사직의 존폐가 한 귀퉁이 쇠잔한 성에 달려 있었거늘, 전군이 무너져 임금이 성 밖으로 나와 행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아, 이 모든 일이 강도를 수비하지 못한 데 말미암은 것이니, 사형을 당한 것은 군법에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민구는 같은 책임을 졌으면서 무슨 충의를 지녔다고 목숨을 보전하여 천수를 누렸단 말입니까? 도원수 김자점은 나라 안의 모든 권세를 지니고 나라 안의 모든 병사를 거느렸으면서도 단 한 번의 전투도 벌이지 않았고, 그 병사들은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 바위 굴에 몸을 숨기고 목숨을 부지하기만을 꾀하며 달무리* 안에 있는 임금을 길 가는 사람 보듯 했지만, 왕법이 시행되지 않고 도리어 은총이 더해졌습니다. 가소로운 심기원은 임무를 담당할 그릇이 못 되고 앞날을 내다보는 계책이 없었거늘, 이런 자에게 막중한 임무를 맡겨 도성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니 군신 간의 의리를 완전히 잊고 제한 몸만 빼어 환난을 피하고자 스스로 지략이 있다 여기며 거북처럼 목을 움츠리고 달팽이처럼 엎드려 지냈습니다. 이처럼 나라의 은혜를 저버렸건만 조정에서는 군법에 회부하지 않고 도리어 총애와 녹봉을 더해 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방님 홀로 사형을 당했으니 어찌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아아, 내 한 목숨 잃은 건 아까울 게 없지만, 살아 계신 백발의 시아버지는 영영 자식을 잃고 말았으니, 죽은 이든 산 이든 원망하는 마음이 어찌 다르겠습니까?”

[뒷부분의 내용] 뒤를 이어 열세 명의 여인이 전쟁에 얽힌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이야기가 끝나자 여인들은 모두 통곡한다. 그리고 청허 선사는 꿈에서 깨어난다.

- 작자 미상, 「강도몽유록」 -

* 강도: 강화도.

* 달무리: 바람이 일어날 징조. 여기서는 임금이 전란을 만나 피란 중에 있음을 가리키는 말로 쓰임.

27.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여 장면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 ② 구체적인 장면 묘사를 통해 상황의 참혹함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우의적 소재를 활용하여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 ④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물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인물의 행위에 대한 서술자의 판단을 보여 주고 있다.

28.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인물들이 추가적으로 등장하여 이들 간의 복합적 관계가 형성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 ② 청각으로 환기된 호기심이 거리의 조정을 거쳐 시각적으로 확인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인물의 관찰 내용을 대비하여 제시함으로써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④ 장면의 전환에 따라 인물이 갖게 된 기대가 우연한 사건을 통해 어긋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 ⑤ 현재 상황에 대한 인물의 관점이 객관적인 것에서 주관적인 것으로 변화되는 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29.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 배경을 제시하여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의 성격을 암시하고 있다.
- ② ㉡: 자문자답의 형식을 사용하여 답을 찾기까지의 어려움을 강조하고 있다.
- ③ ㉢: 유리한 조건에도 부정적 결과를 얻은 점을 들어 인물에 대한 평가의 근거로 삼고 있다.
- ④ ㉣: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여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다.
- ⑤ ㉣: 인물의 행위에 걸맞은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점을 들어 상황의 부조리함을 드러내고 있다.

30. <보기>를 참고하여 밑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점]

— < 보 기 > —

「강도몽유록」은 병자호란에서 희생된 여성들의 입을 빌어 전쟁의 실상을 고발한 작품이다. 전쟁을 다룬 서사가 대개 한 명의 남성 주인공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무용담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는 달리, 이 작품에서는 여러 여성들이 등장하여 각자의 입장을 제시한다. 전쟁에 대한 증언의 중첩은 패배의 원인을 다각적으로 돌아보게 한다. 또한 절의를 중시했던 남성들의 모순된 행태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 주를 이룬다는 점에서, 이러한 증언의 내용은 현실에서는 여성의 목소리로 표현되기 힘든 것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문힐 뻔했던 이들의 목소리는 비현실적 설정 하에서 목격자를 통해 전달된다.

- ① ‘남편’이 ‘체찰사의 임무를 맡았거늘 공론을 살피지 않’았다는 여성의 말에 이어 ‘서방님’이 ‘군사 일 돌보기를 게을리했’다는 다른 여성의 말이 이어지는 데에서, 패배의 원인이 다수의 목소리를 통해 조명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② ‘청허 선사가 ‘설핏 잠이 들어’ 꿈을 꾸었다는 것과 ‘한 부인’이 ‘내 한 목숨 잃’었다고 말하는 것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드러낼 수 있는 비현실적 설정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청허 선사가 ‘한가로이 거닐’다가 우연히 여성들의 대화를 엿듣게 된다는 설정에서, 살아 있을 때는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이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목격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군.
- ④ 여성들이 ‘계책이라고는 전혀 없었’다거나 ‘자기 재주를 헤아리지 못’했다고 비판하는 대상이 자신의 남성 가족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비판의 통렬함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한 부인’이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홀로 사형을 당’한 것이 원통하다고 말하는 것에서, 절의를 저버린 가장에게 의존했던 과거를 후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아
라